

한·일 대학생의 경구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 비교 연구

임 현 자* · 内山 和美** · 조 유 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 외래환자에 대한 원의처방이 의무화되고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과거 경질환에 대하여 약국을 방문했던 국민들의 의료이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의경, 장선미, 신중옥과 박정영, 2002)고 지적하였다.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조재국과 이상경, 2001), 먼저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항생제, 마이신)을 요구하였을 때 약사가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이라고 설명하며 병·의원 방문을 권유한 약국은 53% 였으며, 증상에 대한 문진을 한 경우는 22%였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고도 2년이 지난 지금도 피임약에 있어서는 아직도 사후 피임약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으나, 피임약의 판매와 구입에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 경구피임약도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게 되어 있다. 그야말로 금세기 최대 과학적 발명이며,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할 정도의 '경구피임약(pill)'의 하이테크 선

진국'이라는 일본에서는 1999년 말에야 저용량 경구피임약의 사용허가가 인정된 것이다(후생성, 2000). 후생성은 경구피임약의 허가에 관해 과거 9년 정도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국회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경구피임약의 허가가 지연된 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첫째 의약품 허가 행정의 불투명성과, 둘째 환자(대상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의 부재, 셋째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안녕) 정책의 부재, 넷째 성감염증 예방대책의 부재, 다섯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의 경시를 들고 있다. 후생성이 지금까지 경구피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피임에 관한 조사연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국내 정보가 혼란되었고 부정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팀은 위의 다섯가지 열거한 것 중에서 다섯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건강과 권리가 지켜져 가기 위한 방법을 위한 과제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경구피임약에 대한 양국 대학생간의 지식을 포함한 태도 전반에 관해 한·일간의 상이한 보건의료제도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국제비교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986년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청소년이 당면한 성문제로 청소년의 성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성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청소년들은 피임을 거의 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 일본 나가사끼현립시보르트대학

투고일 8.19 심사외뢰일 8.30 심사완료일 9.30

용하고 있지 않아 원하지 않는 임신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공유산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공유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발생을 막는 피임이 실행되어야 하고(김소야자, 1986; 김진홍, 1996; 박민향, 1985; 성영자, 1984; 조문형, 1991), 가임여성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피임 행위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이홍균과 유태환, 1996).

김영화(1991)는 성경험을 가진 남녀 고등학생 중 64.9%는 피임을 하지 않았고, 남학생의 경우 39.1%, 여학생의 18.9% 만이 피임을 했다고 하여 이로 인한 미혼모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혼모의 대부분이 3~4개월이 넘어서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할 수 없이 아기를 낳는 사례가 많으며 미혼모의 평균 연령이 20세로 90년도의 22세보다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미혼부의 평균 연령은 24세로 알려져 있다(병원신문, 1993). 이들의 연령이 바로 대학 재학 연령임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의 이성애에 대한 관심과 태도, 성에 관한 고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시기에 올바른 성지식을 갖도록 하여 무지에서 오는 파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박영신, 1988; 남명희, 1999).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중, 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성지식과 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신정, 1995; 김영화, 1991; 김용자와 이해경, 1995; 남명희, 1999; 양선희, 1983; 이명화, 1993; 이영휘 외, 1997; 이인규, 1984; 이인숙 외, 2000; 황미혜, 1990; Gordon & Grai, 1986, Lester, 1988). 그러나, 성교 전후에 어떤 조작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매우 높은 피임 효과를 보이는 경구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문화에 비추어 성교육의 초점을 혼전성관계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순결교육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경구피임약은 주로 기혼자만이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구피임약 사용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었다(김상순, 정복례와 김연화, 1984; 맹광호, 1992; 이덕희, 1982; 최인숙, 1974; Gerstmann et al., 1991; Stadel, 1981; Swan & Petitti, 1982). 그러나 경구피임약 사용은 피임의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을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구피임약의 사용을 앞두고 있는 결혼전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탐색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의 건강과 권리가 지켜지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피임지도와 더불어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일 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경구피임약에 대한 한·일 대학생들의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한·일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의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과 양국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한국은 전라남도 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본은 나가사키 현립 시보르트 대학생과 야마구찌 현립 간호대학부생 2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개인적 특성 8개 문항,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 8개 문항,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측정도구 39개 문항으로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경구피임약에 대한 측정도구는 일본 야마구치대학의 Kido 연구팀(2000)이 개발한 척도이다. 측정도구는 원문이 일본어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학과 교수가 번역하여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남녀 대학생 3인에게 3회에 걸쳐 문항을 이해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지식 측정 도구 15개 문항, 태도 측정도구 24개 문항으로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1점에서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지식의 총점 범위는 15~75점, 태도의 총점 범위는 24~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과 태도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식 측정도구의 Chronbach's $\alpha = .64$, 태도 측정도구의 Chronbach's $\alpha = .69$ 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한국에서는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라남도 지역 남·녀 대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대학생 343명에게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중 질문지의 응답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하고 33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일본에서의 자료수집은 2001년 6월부터 8월까지 나가사키 현립 시보르트 대학 영양간호학부생과 야마구찌 현립 간호대학 간호학부생 24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한·일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한·일 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3) 한·일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로 산출하였다.
- 4) 한·일 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을 기술분석으로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한·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한·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한국	일본
		No.(%)	No.(%)
성별	남	165(49.0)	34(13.8)
	여	172(51.0)	211(86.2)
연령	18~20	205(60.8)	210(85.8)
	21~23	59(17.5)	25(10.2)
	24~26	54(16.0)	2(0.8)
	27~29	7(2.1)	4(1.6)
	30세 이상	12(3.6)	4(1.6)
	평균	21.0±3.2	19.6±3.2
결혼	유	10(3.0)	4(1.6)
	무	303(89.9)	202(82.4)
	파트너가 있다	24(7.1)	39(16.0)
종교	유	200(59.3)	67(27.3)
	무	137(40.7)	178(72.7)
합계		337(100.0)	245(100.0)

조사대상자는 한국대학생은 총 337명, 일본대학생은 245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한국이 남학생 49%(165명), 여학생 51%(172명)였고, 일본이 남학생 13.8%(34명), 여학생 86.2%(211명)였다. 조사대상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한국이 21.0±3.2세였고, 일본이 19.6±3.2세였다. 한국 대학생은 18~20세 사이가 60.8%(205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21~23세가 17.5%(59명), 24~26세가 16.0%(54명)였고, 27세 이상이 5.7%(19명) 순이었다. 일본 대학생은 18~20세 사이가 85.8%(210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21~23세가 10.2%(25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대해 한국은 결혼한 학생이 3%(10명)가 있었으며,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7.1%(24명)였다. 일본은 결혼한 학생이 1.6%(4명)가 있었으며,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6.0%(39명)였다.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한국이 59.3%(200명)였고 일본은 27.3%(67명)였다.

2. 한·일 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1) 성별 비교

한·일 대학생들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표 2〉 한·일 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성별 비교

		한		국		일		본		범 위
		Mn±SD	t	p	Mn±SD	t	p			
지식	남	55.7±7.5	-1.34	.080	55.3±6.7	-1.41	.159	15~75		
	여	56.7±6.2							57.0±6.3	
태도	남	81.1±12.2	3.49	.002	80.3±10.1	-.09	.928	24~120		
	여	76.9±10.3							80.4±9.9	

성별 비교는 〈표 2〉와 같다.

한국의 경우 남학생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55.7±7.5, 여학생은 56.7±6.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태도 점수는 남학생은 평균 81.1±12.2, 여학생은 평균 76.9±10.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태도 점수가 더 높았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2).

일본의 경우 남학생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55.3±6.7, 여학생은 57.0±6.3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태도 점수는 남학생은 평균 80.3±10.1, 여학생은 평균 80.4±9.9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식 측정 항목은 15문항으로 15~75점 범위, 태도 측정 항목은 24문항으로 24~12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구피임약에 대해 지지하는 지식과 태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한·일 국가간 비교

경구 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국가간 차이 비교는 〈표 3〉과 같다.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한국대학생이 평균 56.2±6.8이었고, 일본대학생이 56.7±6.4로 일본 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지식점수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361). 경구피임약에 대한 태도점수는 한국대학생이 평균 78.9±11.4, 일본대학생

이 평균 80.4±9.9로 일본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태도점수 평균이 더 높았으나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00).

〈표 3〉 한·일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항 목		N(명)	Mn±SD	t	p
지식	한국	337	56.2±6.8	-.915	.361
	일본	245	56.7±6.4		
태도	한국	337	78.9±11.4	-1.650	.100
	일본	245	80.4±9.9		

3. 한·일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

1) 한국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

한국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경구피임약 복용을 원하는 나이와 연령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78, p=.004).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시 경구피임약의 복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총점은 태도총점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67 p=.000). 즉 대상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

〈표 4〉 한국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

변 수	가측 수	경구피임약 복용 원하는 나이	연령	지식총점	태도총점
가측 수	1.000	.048	.089	.050	-.004
경구피임약 복용 원하는 나이		1.000	.178(.004)	.088	-.094
연령			1.000	-.046	-.075
지식총점				1.000	.467(.000)
태도총점					1.000

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

일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일본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 복용을 원하는 나이와 연령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9, p=.004$).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시 경구 피임약의 복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태도총점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6, p=.002$).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대학생들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총점은 태도 총점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71, p=.000$). 즉 대상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대학생 모두 지식과 태도에서 경구피임약 복용을 원하는 나이와 연령과의 정상관관계로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4. 한·일대학생의 경구피임약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 비교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의 인식에 대한 한·일 대학생간의 비교는 <표 6>과 같다.

한·일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문항은 중복응답 문항으로 한국대학생 337명, 일본대학생 245명의 조사대상자들에게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양국 간에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한국대학생들은 경구피임약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경구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지식부족, 성감염증 우려, 사회적 편견, 성도덕 저하, 원외처방 불가, 상대방 반대, 경제적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대학생들은 경구 피임약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구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 다음은 원외처방 불가, 지식부족, 성감염증 우려,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성도덕 저하, 상대방 반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대학생들은 '원외처방 불가'가 2위였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제기되었고, 한국 대학생들은 '원외처방 불가'와 '경제적 부담' 보다는 '사회적 편견'과 '성도덕 저하'가 우선 순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양국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양국간의 상이한 보건의료제도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표 5> 일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

변수	경구피임약 복용 원하는 나이	연령	지식총점	태도총점
경구피임약 복용 원하는 나이	1.000	.289(.004)	.137	.053
연령		1.000	.115	.196(.002)
지식총점			1.000	.671(.000)
태도총점				1.000

<표 6> 한·일 대학생의 경구피임약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 비교

순위	한 국 (N=337)		일 본 (N=245)	
	항 목 *	대상자수(%)	항 목	대상자수(%)
1	부작용	273(81.0)	부작용	158(64.5)
2	지식부족	218(64.6)	원외처방불가	152(62.0)
3	성감염증 우려	169(50.1)	지식부족	147(60.0)
4	사회적 편견	152(45.1)	성감염증 우려	87(35.5)
5	성도덕 저하	144(42.7)	경제적 부담	87(35.5)
6	원외처방 불가	74(22.0)	사회적 편견	63(25.7)
7	상대방 반대	70(20.8)	성도덕 저하	38(15.5)
8	경제적 부담	47(13.9)	상대방 반대	11(4.5)

* 중복응답 문항임

IV. 논 의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서구 문명의 급속한 유입으로 서구 사회의 성개방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성교제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적, 도덕적 규제가 약화되면서 혼전 성문제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주 등(1998)은 임신경험을 한 10대 여성의 임신 원인의 62%가 사탕, 결혼 약속 등의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임신은 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성관계 후 초래될 수 있는 임신 등의 책임을 요하는 문제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중 성관계 시 피임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37.2%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구병삼 외, 1996) 우리는 현재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 중에서 낮은 인공유산율을 보이는 가족계획 성공국가 중의 하나인 네덜란드의 경우, 고위험 집단인 10대의 1970년의 임신율이 1000명중 20명에서 1990년에는 8명으로 감소한 이유로 10대들의 효율적인 피임법 사용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피임법의 사용의 증가는 성교육, 대중매체, 공중교육 캠페인을 통한 홍보 및 낮은 문턱의 피임서비스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Ketting & Visser, 1994).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단순히 이중적 성윤리가 내제된 순결교육을 바탕으로 한 비실제적이고 피상적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청소년의 건강은 곧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성교육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처방전 없이 경구피임약의 구입과 사용이 자유로웠으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개방되어 있으나 경구피임약의 자유판매와 구입은 1999년 말에야 허용된 보건 의료 제도상에서의 차이점으로 인해 양국 대학생들간에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과 이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예방적 차원의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구피임약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한국은 1950년대에 개발되어 196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피임방법의 하나로 경구피임약이 널리 애용되어 왔고, 특히 젊은 연령층의 여성들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여 왔다. 일본은 경구피임약의 자유구입이 최근에야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대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성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국 7.0%(24명), 일본 16%(39명)로 한국 대학생보다 일본 대학생이 성 파트너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한·일 비교 중 성별 비교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태도점수에서는 국가간의 성별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남명희(1999)의 연구에서 지적한 일부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성지식은 여학생이 더 높았으나 성태도와 성경험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본 연구 결과를 일부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청소년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남녀의 성차이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요구를 덜 가지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하였다(손호은, 1991).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시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구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양국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Kido 등(2002)의 연구에서는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경구피임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서보다 경구피임약의 구입이 더 용이하고,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 대학생들보다 피임시 경구 피임약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용이 제한되어있는 일본 대학생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Zotti와 Siegel(1995)은 정확하고 올바른 피임방법의 사용이 여성의 비계획적인 임신을 예방하거나 지속적인 피임법 사용은 인구사회학적, 문화적,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선택적 피임법 사용상의 문제와 같은 많은 요소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 피임, 특정 피임 방법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규범적 요소에 의해 피임행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의 지식, 태도와와의 상관관계에서, 한국과 일본 대학생은 경구피임약 복용을 원하는 나이와 연령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시 경구피임약의 복용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의 총점은 태도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이 또한 대상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교육시 피임방법으로 보다 안전한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 발생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에서는 양국의 조사대상자 모두 가장 큰 이유로 부작용을 들고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경구피임약 사용의 부작용과 사용 중단 이유로 부작용을 들고 있다(맹광호, 1992; 윤정희, 1973; 이덕희, 1982; 이성관 외, 1970; Grimes, 1986; Lethbridge, 1991).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들의 성교육과 피임지도시 경구피임약에 대한 사용 방법, 사용에 대한 부작용, 금기사항 등의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성의식에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성의 건강과 권리가 지켜지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피임지도와 더불어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한국은 전라남도 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 337명과, 일본은 나가사키 현립 시보르트 대학생과 야마구찌 현립 간호대학부생 245명으로 총 5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개인적 특성 8개 문항,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 8개 문항,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측정도구 39개 문항으로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경구 피임약에 대한 측정도구는 일본 야마구치대학의 Kido 연구팀(2000)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식 측정도구 15개 문항, 태도 측정도구는 24개 문항으로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한국은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실시되었고, 일본은 2001년 6월부터 8월 까지 2개월간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를 이용하여 기술분석,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 대학생 337명, 일본 대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은 남학생이 49% (165명), 여학생이 51%(172명)였다. 일본은 남학생이 13.8%(34명), 여학생이 86.2%(211명)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한국이 21.0 ± 3.2 세, 일본이 19.6 ± 3.2 세였다. 성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국 7.0%(24명), 일본 16%(39명)로 한국 대학생보다 일본 대학생이 성 파트너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한·일 비교

1) 성별 비교에서는 한국의 경우 남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55.7 ± 7.5 , 여학생은 56.7 ± 6.2 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태도 점수는 남학생은 평균 81.1 ± 12.2 , 여학생은 평균 76.9 ± 10.3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태도 점수가 더 높았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2$). 일본의 경우 남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55.3 ± 6.7 , 여학생은 57.0 ± 6.3 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태도 점수는 남학생은 평균 80.3 ± 10.1 , 여학생은 평균 80.4 ± 9.9 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태도 점수가 조금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국가간 비교에서는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한국 대학생이 평균 56.2 ± 6.8 , 일본 대학생이 56.7 ± 6.4 로 일본이 한국 대학생보다 지식점수 평균이 더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p = .361$). 경구피임약에 대한 태도점수는 한국 대학생이 평균 78.9 ± 11.4 , 일본 대학생이 평균 80.4 ± 9.9 로 일본이 한국 대학생의 태도점수 평균이 더 높았으나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100$). 결과적으로 양국 대학생들간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한·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피임약의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

1) 한국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경구피임약 복용을 원하는 나이와 연령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78, p = .004$).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시 경구 피임약의 복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들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총점은 태도총점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67, p = .000$). 즉 대상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태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경구 피임약 복용을 원하는 나이와 연령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r = .289, p = .004$).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시 경구 피임약의 복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태도총점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96, p = .002$).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대학생들의 경구 피임약에 대한 지식총점은 태도총점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r = .671, p = .000$). 즉 대상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사용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구피임약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한국대학생들은 경구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지식부족, 성감염증 우려, 사회적 편견, 성도덕 저하, 원외 처방 불가, 상대방 반대, 경제적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생들은 역시 경구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 다음은 원외처방 불가, 지식부족, 성감염증 우려,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성도덕 저하, 상대방 반대

순으로 나타나 양국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양국간의 상이한 보건료제도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생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양국간의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 더 나아가 양국 대학생들의 학년별 비교와 도농간 지역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구병삼, 이 찬, 신재철 김 탁, 탁 송, 홍명호, 박영주 (1996). 10대 여성 성(sexuality)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39(6), 1007-1016.

김상순, 정복례, 김연화 (1984).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부인들의 실태. *중앙의학*, 47(5), 301-309.

김소야자 (1986). 도시 청소년의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연세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간호학논집*, 9.

김신정 (1995). 대구시내 일부 여대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60(4), 345-353.

김영화 (1991). *청소년 성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김용자, 이혜경 (1995).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35-53.

김진홍 (1996). *인공유산과 여성 건강*. 인공유산과 여성 건강 세미나. 대한 가족계획 협회, 19-30.

남명희 (1999).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239-251.

맹광호 (1992). 경구피임약 복용과 여성 유방암 발생과의 관련성 여부. *한국역학회지*, 14(1), 5-10.

박애신 (1992).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지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영신 (1988).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3(6), 393-413.

박영주, 구병삼, 홍명호, 김탁, 신재철, 이찬, 문준, 오민정 (1998). 한국 10대 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 경험 실태. *대한간호학회지*, 28(3), 573-582.

병원신문 (1993). 한국부인회 실태 관련 세미나, 631, 14.

- 성영자 (1984). 남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호은 (1991). 국내 성교육용 영상교재에 관한 연구 : 중.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선희 (1983). 일 도시지역 남녀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44(2), 113-123.
- 윤정희 (1973). 먹는 피임약의 피임 효율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덕희 (1982). 경구피임약 복용자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화 (1993).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 이성관, 김두희, 홍순호, 김두희, 예민해 (1970). 각종 먹는 피임약의 부작용, 중단이유 및 계속율의 비교 연구. *예방의학회지*, 3(1), 51-95.
- 이인규 (1984). 일부 도시지역 남녀고교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47(2), 105-114.
- 이인숙 (1994).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숙, 전미양, 김영희, 정미숙 (2000).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382-395.
- 이영휘,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난순, 한유미, 황운정 (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 이의경, 장선미, 신중옥, 박정영 (2002). *의약분업 전후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홍균, 유태환 (1996). *인공유산 실태에 관한 연구*. 인공유산과 여성건강 세미나, 대한가족계획협회, 3-16.
- 조문형 (1991). *기혼여성의 인공유산 경험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재국, 이상경 (2001).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7-20.
- 최인숙 (1974). *연희 연세지역 주민의 먹는 피임약 복용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미혜 (1990). 일지역 여대생의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태도 및 지식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5(12), 833-840.
- 후생성 (2000). 내부 자료.
- Gerstmann, B. B., Piper, J. M., Tomita, D. K. (1991). Oral contraceptive dose and the risk of deep venous thromboembolic disease. *Am J Epidemiol*, 133, 32-37.
- Gordon, S., & Grai, W. S. (1986). *Personal issues in human sexuality*, Boston : Allyn & Bacon.
- Grimes, L. (1990). Unplanned pregnancies in the United States. *Obstet Gynecol*, 67, 438-440.
- Katase, K. (2000).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contemporary Japanese youth. *Journal of Asian Sexology*. Asian Federation for Sexology. 2. 119-120.
- Ketting, E., Visser, A. P.(1994). Contraception in the Netherlands : the low abortion rate explained.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23, 161-171.
- Kido, K., Cho, Y. H., Lim, H. J., Shimada, T., Uchiyama, K., Nakajima, R., Kitagawa, M. (2002). *The image and social factors for the oral contraceptive - comparison between Japanese and Korean Students*, 26th Triennial Congress, Vienna Austria Center,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
- Lester, B., & Cox, J. (1988). Involving nurses in public school sex educa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58(3), 108-109.
- Lethbridge, D. J. (1991). Choosing and using contraception : Toward a theory of women's contraceptive self-care. *Nursing Research*, Sept/Oct, 40(5), 276-280.
- Stadel, B. V. (1981). Oral contraceptiv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N Engl J Med*, 40, 171-184.
- Swan, S. H., Petitti, D. B. (1982). A review of problem of bias confounding in epidemiologic studies of cervical neoplasia and oral contraceptive use. *Am J Epidemiol*, 115,

10-18.

Zotti, M. E. & Siegel, E. (1995). Preventing unplanned pregnancies among married couples : Are services for only the wife suffici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 133-142.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 on Oral Contraceptiv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Lim, Hyun Ja* · K, Uchiyama**

Cho, Yoo 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oral contraceptiv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better sex education programs and direction.

Korean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7 university students in M city,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 to April 20, 2001 and Japanese subjects 245, during the period from June to August, 2001.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 packag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ean age of Koreans and Japanese students was 21.0 ± 3.2 and 19.6 ± 3.2 years old. The number of Japanese youths having the partner with sexual intercourse was larger than tha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2. Comparison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oral contraceptiv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

- 1) Comparison of sexual differences : Oral contraceptives related knowledg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rked 55.7 ± 7.5 of male students and 56.7 ± 6.2 of females with a range of 15 to 75. The level of female students' knowledg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but there is not statistically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80$). Oral contraceptives related attitud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rked 81.1 ± 12.2 of male students and 76.9 ± 10.3 of female's with a range of 24 to 120. The level of male students' attitude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and there is statistically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2$). Oral contraceptives related knowledge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marked 55.3 ± 6.7 of male students and 57.0 ± 6.3 of female students. The level of female students' knowledg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but there is not statistically a significant difference ($p = .159$). Oral contraceptives related attitude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marked 80.3 ± 10.1 of male students and 80.4 ± 9.9 of female students. The level of female students' attitud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and there is not statistically a significant difference ($p = .928$).
- 2) Comparison between the country : Oral contraceptives related knowledg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rked 56.2 ± 6.8 and 56.7 ± 6.4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with a range of 15 to 75. The level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n's but there is not statistically a significant

*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 Siebold University of Nagasaki, Japan

difference($p = .361$). Oral contraceptives related attitud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rked 78.9 ± 11.4 and 80.4 ± 9.9 of Japanese with a range of 24 to 120. The level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n's and there is not statistically a significant difference($p = .100$).

2. Wanted age of oral contraceptives taking medicine and age was correlated positively ($r = .178$, $p = .004$) and total knowledge score of oral contraceptives and total attitude score were correlated positively ($r = .467$, $p = .000$)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Wanted age of oral contraceptives taking medicine and age was correlated positively ($r = .289$, $p = .004$), age and total attitude score were correlated positively ($r = .196$, $p = .002$) and total knowledge score of oral contraceptives and total attitude score were correlated positively ($r = .671$, $p = .000$) i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3. Korean university students lifted side effect by the greatest factors in investigation about leading person that disturb work oral contraceptive, and the following appeared by knowledge insufficiency, sexual feeling inflammation worry, social prejudice, sexual morality decline, supernumerary prescription being not right, other person reverse and economical burde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can know that it is appearing by side effect, supernumerary prescription being not right, knowledge insufficiency, sexual feeling inflammation worry, economical burden, social prejudice, sexual morality decline and other person reverse. Think that this is result by dissimilar health medical system and cultural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Key words :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Oral contraceptives, Knowledge, Attitude